



**- 선박구조강도분야 국제규격 개발에 주도적 역할-**

-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“선박구조강도의 최종한계 상태 평가방법”이 국제규격(안)으로 채택되었다. 본 규격(안)은 기술표준원이 표준화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1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표준화기구의 선박구조분과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국제규격(안)으로 채택되었으며 ‘06년까지는 국제규격으로 제정될 전망이다.
- 동 규격(안)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한국, 미국, 영국 등 9개국의 전문가로 WG(Working Group : 작업반)이 구성되었으며,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백점기 교수가 의장(convener)으로 선임되어 국제규격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 동 규격(안)이 채택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조선분야의 핵심인 구조강도의 국제규격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조선국가로서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이다.
- 동 규격(안)은 항해중인 선박의 극한상태를 기준으로 한 평가방법을 정립한 것으로서 선박구조의 충분한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선박이 항해중 침몰에 따른 해양환경오염, 인명손실 등 해난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.

